

“For the Healing of the Nations”
열방의 치유를 위해

The 2009 General Assembly of t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Indianapolis, Indiana

“Return to Wholeness” - Genesis 3:1-9

“하나됨으로 돌아가자”- 창세기 3:1-9

Thursday Evening – July 30, 2009 – 8 pm

목요일 저녁 – 7 월 30 일 2009 년 – 저녁 8 시

그렌데일, 캘리포니아 (Glendale, CA)- 로스 앤젤레스의 교외가 저에게는 "고향"입니다. 제가 자라난 곳입니다. 구글에 가서 “글렌데일의 관광 명소”를 찾아보면 금새 검색 순위 위에 사과문의 검색이 뜹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는 “그렌데일 캘리포니아 주위에는 관광 명소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기도하고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생각됩니다. 구글이 찾아주는 다른 검색들을 둘러보면 내 고향에 명소가 적어도 한 곳은 있습니다. 포레스트 론(Forrest Lawn)이라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LA 의 곳 곳에서는 스타들의 집이 있는 길의 구석 구석을 나타내 주는 지도를 팝니다. 그렌데일에서는 스타들의 무덤이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를 팝니다. 세계의 어느 곳보다 많은 스타들의 마지막 쉼의 장소가 포레스트 론 공동묘지입니다. 크라크 게이블, 캐롤 롬바드, 지미 스투어드, 진 할로우, 험프리 보가트, 매리 픽포드, 에롤 플린 그리고 스펜서 트레이시(Clark Gable, Carole Lombard, Jimmy Stewart, Jean Harlow, Humphrey Bogart, Mary Pickford, Errol Flynn, and Spencer Tracy 같은 스타들이 그곳에 묻혀있습니다.

내가 어려서 자라날때, 집에 타주에서 온 손님이 있을때 마다 난 항상 근 시일 내에 공동묘지에 갈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타들의 묘지가 어느 것인지 가리키려고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987 년에 교황 바오로 2 세가 로스 앤젤레스에 들렀을때 포레스트 론에 들렀는데 쓰리 스투지 Three Stooges(3 명의 조연 이라는 흑백 코메디 쇼)에 나오는 장례 회관 지하실에서 사진 한 컷 찍으러 온것이 아니었음에 대해 여러분은 확신을 가져도

될것입니다. 교황이 제 고향의 공동묘지에 들른 이유는 미술, 특히 한 그림을 보기위해서였습니다.

1917년에 Hubert Eaton 박사가 Glendale 에 있는 포레스트 론 메모리얼 공원의 관리를 인수했을때, 죽은 사람이 묻히는 장소로 보다 훨씬 더 광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보기좋은 비석들이 자리를 채운 공간보다 이튼 박사는 공동묘지를 예술 작품들로 특히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극적인 순간들을 묘사한 미술 작품들로 채우리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럽을 뒤지며 그의 공동묘지에 놓을만한 작품들을 사거나 복제품을 안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얻은 작품들 중 하나는 얀 스티카의 최고 작품중 하나였는데 “십자가의 처형 The Crucifixion”이라고 불리는 작품이었습니다. 폴란드 사람이었던 교황이 폴란드 인의 예술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제 고향에 들렀던것이었습니다.

그림에 나타난 장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날 오후 예루살렘 벽 밖에 한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시간은 예수 그리그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하늘로부터 한 빛줄기가 하늘을 우러러 보는 예수님의 얼굴을 비춥니다. 그분의 옆에 무릎을 꿇은 사람은 그 옆에 십자가를 꽂기 위한 구멍을 땅에 파던 사람이었습니다. 곧 그가 판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꽂히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손에는 방금 땅을 파다 나온 사람의 뼈가 쥐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기독교 전통의 한 견해를 드러내는 장면으로, 예수님께서 아담의 무덤 위에서 십자가에 못박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의 어디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실 성경에 정확하게 적혀있지 않습니다. 한가지 힌트가 있는데 수백년 동안 성도들에게 영감을 준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9 장 41 절 말씀인데,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시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무덤이 있는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의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 구절은 우화적인 동기를 부여하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그에 뿐만 아니라, 4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신가신 장소가 골고다 라는 곳으로, 이를 번역하면 해골의 곳입니다(마태 27:33, 마가 15:22, 누가 23:33, 요한 19:17), 그로인해 “갈보리 밀의 아담”전통이 자리잡기 시작됩니다.

(신학의 아버지) 오리겐은 3 세기에 그의 마태복음에 관한 논평을 보면 유태인의 유산에 대해 한 기독교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최초의 인간 아담의 유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묻혀있었다는 전통에 대해 반복해서 오리겐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루살렘을 찾으면 아담의 성당이 갈보리에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순례지 바로 밑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전통은 그리스 정교(Eastern Orthodox)의 성물들에 나타난 십자가의 밑의 작은 두개골을 배치해 놓은 것으로도 나타나 있습니다.

성물들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선과 색으로 드러난 신학”이기 때문에 위의 성화에 나타난 신학의 해석을 바라볼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었나 보다는 왜 예수가 죽었는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담의 무덤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게되는 것을 상상한 작가의 상징적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려는 일이 어떻게든지 성경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와 연루될 수 밖에 없음을 말해주는것 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의 내용을 요약해서 자기기 믿고있는 것을 선포한 고린도 전서 15 장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3 절)”. 그러나 이것은 복음에 대한 단지 바울만의 견해가 아니었습니다(Hicks 인용).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신약전서가 갈보리의 십자가 선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보편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내가 지난 40 년동안 섬겨왔던 제자회 교회에서는 교인들 모두가 한 공동체로 모여 식탁을 맞이하며 떡을 나누고, 잔을 축사하고 주님을 기념하는 성만찬의 순간이 예배 시간에 항상 있었습니다. 주님의 만찬의 시간에는 항상 성경 구절을 읽고, 만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며 명확하고 변함없이 일치하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죄와의 연관을 점선으로 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목적의 한 부분은 “죄를 다루기 위함”이었습니다(히브리서 9:28).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의 만찬에 모일때 항상 확실히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일때 마다 떡을 나누고, 잔을 축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용서, 하나님의 자비롭게 베푸시는 그 용서에 대한 생각이 절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를 창세기 3 장의 말씀과 같이 되게합니다.

댄 스노우(Dan Snow)는 벽, 테라스, 그리고 돌로 만든 건축물 들을 만드는 장인입니다 그의 저서들을 대단합니다. 단지 놀라운 작품들의 서술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그의 손에 흙을 묻히고 이마를 땀으로 적시며 수년간동안 얻은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만트(Vermont) 주의 한 농장에서 옹벽을 올리는 것에 관한 에세이를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시작합니다.“건축은 돌맹이 한 조각으로 시작 됩니다...그러나 한 조각이 놓여질때까지 다음 조각을 고르기 위한 영감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모든 선택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선택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는 석재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고 연구하는 저희들은 글을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아주 똑같은 진리가 적용됩니다.

성경은 한 동산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처음 돌 한조각입니다. 이 돌이 놓여지면 그 뒤에 놓여질 돌들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인간은 완벽한 평화 안에서 시작하게됩니다. 시간 이전의 시간에 퍼즐의 한 조각 한 조각들이 한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는것 같이 모든것 모든 이들이 잘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축복을 희미하게 접하게 되고, 반면 보다 명확하게 이러한 축복이 없음으로 인해 아픔을 겪고, 우리의 또한 이 축복이 진정한 근원이자 마지막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고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곳으로 부터 우리는 그 동산에서 살기 위해 만들어 졌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동산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망가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러한 고통의 모순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1970 년대에 제가 목회를 시작해서 청소년부에서 일 할 당시 창세기를 시작하는 처음 장들을 한 고요한 연못에 돌맹이가 던져졌을때 일어나는 일들과 비교하곤 했습니다. 돌맹이가 연못의 물에 던져지자마자 물결은 한 중심에서 계속 계속 퍼져 나갑니다. 창세기 3 장이 말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연못에 던져진 돌맹이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제가 신학 대학교에 있었을때 지금은 돌아가신 부흥 신학자 프란시스 웨이퍼(Francis Schaeffer)의 통해 신학에 대한 진정한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 장에서 죄를 깨닫고 그 뒤에 따르는 여러가지 분리들을 서술하여 죄의 이야기의 결과에 관하여 적었습니다(98-101). 웨이퍼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최대의 분리(great separa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밤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분리가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분리들의 근원이 됩니다. 셰이퍼는 이 논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창세기의 다음 장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분석하며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터 처음 분리된것이 다른 그리고 또 다른 분리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 *심리적 - 깊은곳으로부터 느끼는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갈라짐;*
- *사회적 - 다른 이들과 인종, 성, 경제력, 문화 그리고 국가의 차이로 겪게되는 갈라짐.*
- *생태학적 - 우리가 처한 자연적 환경이 더이상 낙원이 아니고 도전의 배경이라고 느껴지는 갈라짐.*

창세기의 처음 장들은 나에게 로러 코스터 열차와 같은 느낌을 받게합니다. 먼저 깊은 경사를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절정에 오릅니다. 그리고 날음질 하는것 같은 흥분이 있습니다. 정상을 정복함과 함께 지탱해오던 받침 바닥이 떨어져 나갑니다. 갑자기 정 반대 방향으로 사정없이 곤두박칠 합니다. 창세기 1 장과 2 절의 의미있는 출발을 시작한 뒤, 창세기 3 장이 만들어내는 대파괴를 겪습니다. 모든 관계가 상함을 입습니다. 삶의 모든 표면이 이로인해 영향을 입습니다. 디트리치 본호퍼 Dietrich Bonhoeffer 는 창세기 3 장에 관한 그의 평에 아담과 하와의 반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물이 “마치 운석이 그의 핵에서 떨어져 나가 끝이 없는 우주로 추락하게 됨 같다(76)”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두지만은 않습니다.

죄를 지은 그날, 저녁의 선선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안으로 거느시다가, 우리의 영혼의 부모에게“어디에 있느냐?” 물으십니다. 여기서 세가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자비를 표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었든지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뒤에 숨든지,

하나님께서 명확히 표기해 주신 길을 따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계의 길을 통해서 적어도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의 과정에서 우리가 말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분을 행하실 기반(Steadman 인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창세기 3 장의 이야기에서, 인간이 선택한 것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부모에게 질문하십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질문 하시며 깨끗하고 명백하게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고백의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나 보고가 필요해서 그 질문을 던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에 대해 모르고 계시던지,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느냐?” 하셨을때에는 에덴동산의 위치가 어디인가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영혼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신 것입니다. 랍비 마크 젤만 Marc Gellman 이 설명하듯이,

배가 나침반 없이 바다를 항해할 수 없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을 항해할 수 없습니다. 그 질문과 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우리 앞에 놓인 일들에 대한 영적 예정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그 질문과 그에대한 우리의 답변은 우리가 숨기고 있는 것들, 피하려는 것들과 우리가 이뤄온 경과와 우리가 실패한 방법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자신 속이는 것들을 꿰뚫어 보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 장은 아담과 하와의 실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 보셨을때 정직한 책임있는 대답을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감추고, 피하고, 변명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바빴는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돌이키지 못할 분기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서부터 눈덩어리가 굴러내려오며 불어나듯 사태가 심각해지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눈 사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스 정교의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이야기가 4 순절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주일 아침 예배에서 성만찬 시간에 상기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날 성례식을 맡은자는 만찬의 말씀에서 우리의 영적 부모가 문이

잠겨버린 낙원의 문밖에 좇거나 슬피 울며 후회하는 잇을 수 없는 이미지를 포함하여 그들의 죄를 상기시킵니다.

아담이 낙원 앞에 앉아 있습니다. 자기의 벌거벗음에 슬퍼하며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화가 있을 지어다. 사악한 꾀임에 빠져서 내가 길을 잃었도다. 이제 나는 영광자리에서 추방자의 신세가 되었구나. 나에게 화가 있으리라. 나의 단순한 어리석음에 나는 완전히 벌거숭이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나는 도주의 신세가 되었다. 낙원이여, 나는 더이상 기쁨을 누리면 안되겠다. 더이상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창조자를 바라면 안되겠다. 내 삶이 끝나면 흙으로 돌아가겠구나(Steenberg 인용.)

그리고 예배의 중간에 아주 미묘한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남자”, “그 여자”, “그 때”, “거기서”라며 이야기를 하다가 “당신”, “나”, “지금”, “여기” 그러면서 우리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가 아담과 하와와 함께 그들 바로 옆에 서있는것을 발견합니다.

더이상 제 삼자의 시점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죄와 타락과 회개와 심판을 일인칭 시점으로 돌리게 됩니다. 나는 더이상... 잠겨진 문 밖에서... ‘아주 오래전 저 멀리서’의 이야기를 대할때 그 타락의 죄를 짓지 않은 나와는 상관없는 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간에 아담의 신성한 사건과 우리의 개인적인 역사가 모두함께 하나되어 만찬의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Steenberg 인용).

그리스 정교의 사순절 이전 마지막 주일 아침 예배의 성만찬 메세지는 다음과 같이 시작 됩니다. “회개의 문으로 나를 열게하소서”이것은 우리의 영적 부모들이 하지 못한, 아니면 하지 않았던 것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간청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에 회개하고 진정으로 용서를 빌 수 있게되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기도를 대해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 사순절 이전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는 모든 사제들과 성도들이 줄을 지어 죄책감과 은혜를 표현하는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하나

하나씩 교회 안의 모든 사람이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과 접촉을 합니다. 얼굴을 맞대고, 손에 손을 잡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든 일들을 사과합니다. 그리고 난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만약 오늘밤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해 본다면 내일 총회는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만약 회개의 문이 여기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이번주에 열리게 되면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제자회 교인으로서 어떠한 변화가 있겠습니까? 숨고 있던 교회, 회피하던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수 있을까요? 인간사에 공통 적으로 드러나는 지긋 지긋한 죄악인 불필요한 갈라짐을 하루아침에 사라지게하고 분단된 세상을 하나로 이루자는 약속을 이행한 교단이 주는 충격은 어떠하리라 생각 하십니까?

한 교단으로서 우리의 신념을 밝히는 선언문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셨듯이 모두를 환영합니다”라고 말하는 주님의 만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질문을 일으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같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태복음 26:27-28.)

그가 배반 당하시던 그날 밤, 우리의 주님은 떡과 잔을 가지고 그에게 임박한 십자가의 죽음과 죄의 문제의 깊은 연관을 맺으시고 계십니다. 에덴에서의 타락을 마음에 지니신 채로 그분은 갈보리로 향하셨습니다. “네가 어디있느냐?”는 질문과 함께 동산에서 시작한 여정은 예루살렘의 바깥의 한 언덕에서 십자가에 까지 이르렀고 용서가 이뤄지고 용서라는 단어를 말했습니다.

십자가 밑의 해골... 그게 바로 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용서의 능력이 주어졌으며 용서로 인해 언젠가 모든 나라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출저

Bagatti, Bellarmino. “*Notes on the Iconography of Adam Under Calvary.*” Essays: Studium Biblicum Franciscanum – Jerusalem. 2007.

Bonhoeffer, Dietrich. Creation and Fall; Temptation: Two Biblical Studies. MacMillan. 1959.

Forest Lawn Memorial Park. The Story of “The Crucifixion.” Forest Lawn Memorial-Park Association. 1954.

Gellman , Marc.

Hicks, John Mark. “*What Did God Do To Sin and Death Through Jesus Christ?*” johnmarkhicks@wordpress.com

Schaeffer, Francis. Genesis in Space and Time. IVP. 1972.

Snow, Dan.

Steenburg

Veit, Richard F. and Mark Nonestied. New Jersey Cemeteries and Tombstones. Rivergate Books. 2008.